

기억하지 않아야 완성되는 춤, 탱고

나 여랑

춤과 춤이 아닌 것의 경계

어디까지가 움직임이고, 어디부터가 춤인가. 사실 기준은 명확치가 않다. 따라서 춤은 그 만큼 표현의 자유가 허용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춤을 준비된 소수만이 즐길 수 있는 장르로 오해하는 시각이 종종 있다. 음악에 맞춰 표현하는 아름다운 동작은 미리 준비된 것이므로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향유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 견해이다. 물론 발레나 전통 무용처럼 일정한 양식이 보여주는 미학을 표현하는 것이 춤의 목적인 경우에는 이러한 견해와 맥락이 같을 수 있다. 하지만 탱고처럼 즉흥성이 강한 춤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

탱고는 춤을 추는 목적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무용수의 호흡이나 동작의 예술성 등을 강조하여 관객이 테크닉이나 음악에 맞춘 동작의 표현력을 '관람'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는 쇼 탱고와 춤을 추는 이들이 즐기기 위해서 추는 살롱 스타일 탱고가 있다. 앞서 말한 탱고의 즉흥성은 후자인 살롱 스타일 탱고에 입각한 시각에서 언급할 수 있는 견해인데, 기본 8스텝을 한 세트(Salida)¹⁾를 중심으로 무궁무진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 'salida'는 탈출구라는 뜻으로 탱고의 기본 패턴이 되는 여덟 스텝을 말한다.

즉흥 춤

탱고는 기본 8스텝에 입각하여 걷고, 여기에 여러 응용 동작을 첨가하여 진행되는 춤이라는 것은 맞다. 하지만 탱고에는 일반적인 춤의 스텝과는 조금 다른 원칙이 있다. 어떠한 스텝이든 한 발로 서서 걸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렇다면 왜 탱고는 한 발로만 서서 추어야 하나. 이것도 탱고가 가진 즉흥성의 맥락에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남자의 리드로 시작하여 그 리드를 여자의 방식대로 표현하여 완성하는 것이 탱고다. 남자가 리드를 할 때, 여자는 즉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해야 한다. 그런데 두 발로 서서 걸을 때보다는 한 발로 서 있을 때 표현의 진행이 빠르다. 따라서 탱고는 어떤 동작이든 한 발로 서서 진행된다.

그런데 탱고는 상체를 포함한 온몸을 활용한 동작도 많이 있다. 그렇다면 이런 동작은 어떤 방법으로 즉시적인 표현이 가능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답은 상하체 분리의 원칙에서 찾을 수 있다. 탱고의 대표 동작인 상체와 하체의 진행 방향을 반대로 하여 8자로 걷는 오초(ocho)나²⁾ 한쪽 팔과 반대쪽 다리의 진행 방향을 달리하여 만드는 볼레오(boleo)가³⁾ 바로 그 예다. 따라서 탱고의 즉흥성은 한 발로 서는 원리와 상하체 분리 원리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탱고에서 음악은 ‘듣는 것’이 아니라 ‘해석하는 것’이다

탱고의 본 고향인 아르헨티나에서는 길거리에서 탱고춤판(milonga)이⁴⁾ 열리는 광경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다. 이러한 길거리 라이브 연주는 기타 한 사람, 반도네온 한 사람으로 조촐하게 구성된다. 그러나 연주자들은 악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즉석에서 벌어지는 춤판이므로 주위 풍광과 함께 여러 소리가 곁들여지면 생동감을 더해지고

2) 8자 모양으로 걷는 스텝.

3) 한쪽 다리로 반대쪽 다리를 감는 듯 차는 동작.

4) 원래 밀롱가(milonga)는 음악과 춤의 장르를 가리키는 말인데, 요즘은 탱고를 추는 곳을 가리켜 밀롱가라고 한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 밀롱가(milonga)

춤판이 고조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보통 탱고춤판은 3가지 종류의 음악으로 한 세트(탄다)가 구성된다. 소위 전통 탱고 음악이라 칭해지는 4박자 음악은 탱고, 서양의 왈츠처럼 느리고 우아한 느낌을 주는 3박자 발스(vals), 가장 빠르고 강렬한 리듬을 선사하는 2박자는 밀롱가(milonga)이다. 탄다의 구성은 보통 탱고 4곡, 발스 3곡, 밀롱가 3곡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한다.

지금부터 강남의 E밀롱가에서 어떤 춤판이 벌어지는지 구경한다고 가정해보자. 먼저, 현재 흐르고 있는 탱고 음악은 4박자짜리 피아졸라의 탱고 곡이고, 플로어에는 다섯 쌍의 커플이 LOD에⁵⁾ 따라 탱고를 추고 있다. 먼저 첫 번째 커플의 남자는 음악이 표현하는 기본적인 박자를 철저히 지키는 기본 스텝 위주의 리드를 구사하는데, 그와 함께 춤을 추는 여자 역시 비슷한 뉘앙스의 스텝을 구사하며 춤을 춘다. 또한 두 번째 커플의 남자는 느리고, 부드러우며 우아한 분위기로 여서 파트너를 리드하고

5) 밀롱가에서 플로어의 진행방향을 지칭하는 말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을 말한다.

있다. 그렇다면 여자 파트너는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부드럽고 우아한 느낌의 동작으로 리드를 받을 것인데, 여기서 분면 4박자 탱고 곡이었던 음악은 6박자, 혹은 8박자로 박자가 늘어날 수가 있다. 실제 음악이 느려지는 것은 아니라 특정 탱고 커플이 같은 음악을 듣고도 자신들만의 표현을 하기 위해 박자를 가지고 ‘노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박자 탱고가 어느새 3박자 곡으로 이루어진 발스로 바뀌었다. 그러면 플로어의 풍경도 전환된다. 세 번째 커플의 남자는 첫 번째 발스 곡에서 굉장히 매너 있고 품격 있는 분위기의 리드를 구사하다가 두 번째 발스 곡에서는 여자 파트너가 최소 네 바퀴 이상은 돌아야 하는 히로(giro)⁶⁾ 동작을 리드하면, 첫 번째 곡에서 격조 있는 숙녀처럼 동작을 구사하던 여자 파트너도 두 번째 곡에서는 빙글빙글 도는 말괄량이 소녀가 된다. 어느새 플로어의 음악이 또 바뀌었다. 이번에는 2박자짜리 밀롱가가 시작되었는데, 네 번째 커플의 남자는 매우 성격이 급해서 음악에서 전달하는 박자의 절반씩을 더 쪼개어 리드를 한다. 이렇게 되면 이 커플은 박자를 매우 잘게 쪼개어 춤 동작에 활용하는 형태의 표현 방식이 나오게 된다.

만약 탱고도, 발스도, 밀롱가도 아닌 정체불명의 곡이 흘러나올 경우에는 어떤 춤사위를 구사해야 할지 궁금하다. 아마도 그 정체불명의 곡은 ‘새로운 탱고’(nuevo tango)이거나, 탱고음악이 아닌 음악일 확률이 높다. 이럴 때는 그야말로 춤추는 사람들의 심장 박동이 곧 박자가 된다. 음악을 따라 동작을 맞추어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음악을 해석한 대로 움직이면 되는 것이다. 꼭 앞으로 전진하지 않아도 되고, 그 자리에서 무게 중심만 바꾸어도 무관하며, 여러 번 도는 히로 동작이나, ‘8’자를 그리는 오초 동작만을 반복해도 된다. 탱고 커플이 상호 호흡하며 해석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탱고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탱고에서는 음악을 해석을 한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든 지점에서 다 나아가지 않아도 되고, 모든 순간 음악에 맞추어 적절한 동작을 할 필요도 없기 때

6) 직사각형 모양을 그리며 도는 동작.



독일 출신의 탱고 무용수 니콜 나우(오른쪽)와 아르헨티나 출신의 루이스 페레이라(왼쪽). 두 무용수는 순수 아르헨티나 탱고 양식의 춤을 선호한다.

문이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같은 곡을 가지고 비슷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춘다할지라도 곡의 박자 활용이나 해석이 달라지는 진다. 그러므로 각기 다른 춤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춤

이렇듯, 박자의 루바토가⁷⁾ 주류를 이루는 탱고는 분명 지구 반대편 먼 나라 아르헨티나의 춤이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이렇게 동떨어진 곳의 문화를 즐기고 있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먼 나라의 문화를 어떤 이유로 향유할 수 있는지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의외로 매

7) 임의의 템포라고 불리며, 연주자가 특정 부분에 나름의 해석에 따라 박자를 조정할 수 있는 것.

우 쉽게 찾을 수 있다. 우리 전통 문화가 가진 특성과 탱고의 성향의 접합 지점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현대에 와서 우리 전통 예술인 마당극이나 판소리 등이 성행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한국 사람이라면 응당 가진 신명은 마당극이나 판소리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명의 배우의 연기로 시작된 마당극 판이 관객을 한명씩 무대에 이끌고 나와 함께 웃고, 노는 형태를 탱고가 가진 집단 표현성과⁸⁾ 비슷하다. 또한 음악에 있어서도 분위기에 따라서 음을 늘이기도 하다가 줄이기도 하는 탱고 곡의 특성은 관객의 반응에 따라 다양한 애드립이 삽입되는 우리의 전통 음악의 진행과 닮아있다. 탱고가 가진 즉흥성과, 애절함 짙은 음악색, 그리고 감정 소통의 형식이 바로 한국인들이 탱고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요인인 것이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지구 반대편의 문화인 탱고를 정서적으로 가깝게 인지하고, 향유하는 것이다.

인생을 알 수 있는 춤

그러나 탱고가 우리나라에서만 사랑받는 춤은 분명 아니다. 1800년대 탱고가 생겨난 이래 세계 전역에서 사랑받고 있는데, 그것은 탱고를 추면서 인생 여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탱고를 가지고 이 춤을 표현할 수 있는 집약적인 표현이 무수히 많다. ‘3분간의 연애’, ‘인간관계를 알 수 있는 춤’, ‘고독을 이겨내는 춤’ 등등이 여럿이 있지만 가장 으뜸은 ‘인생을 알 수 있는 춤’이라는 표현일 것이다. 인생을 알 수 있다니, 이 말에 대해 그깟 3분짜리 춤 한번 추면서 어떻게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을 알 수 있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생겨날 수 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탱고를 추면 인생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탱고는 절대 혼자서는 출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홀로 될 때 느끼는 고독감을 해소할 수 있고, 남녀가 추기 때문에 춤을 추면서 인류 최대의 발명품이자 죽어도 풀

8) 불특정 다수가 밀롱가에서 같은 음악을 듣고 서로 다른 사람과 춤을 추며 감정을 공유하는 것.

지 못할 숙제인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도 있다. 또한 음악에 따라 여러 해석이 가능하므로 인간이라면 응당 가진 표현의 능력을 뽐낼 기회도 맞볼 것이고, 리드하는 법, 기다리는 법, 나를 버리는 법, 온전히 맡기는 법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배움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대의 리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다음 동작은 어떤 것일까 예측해보는 지점이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인간관계의 무수한 감정,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대한 총체와 그보다 더 중요한 불확실성에 대한 배움을 이 춤이 주는 것이다. 그래서 탱고는 젊은층보다 중장년층에서 인기가 많다. 이 춤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출 수도 있고, 지나치게 격렬하지 않다는 장점 때문도 있겠지만 젊은이보다는 어른이 인생에 대한 이해와 경험의 폭이 넓기 때문에 더 적합할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실제로도 이름난 마에스트로는 백발의 노인인 경우가 많다. 그들이 체력적인 한계 때문에 화려한 기교나 장식 동작을 구사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춤은 분명 진정성이 있다. 탱고가 이야기하고 있는 철학을 이해하고 인생의 순리도 이해하며, 인생을 춤에 이입하여 표현하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젊은 혈기로 기술을 연마하여 탱고를 정복하려고 덤비는 자들은 이 춤을 절대로 '정복'할 수 없다.

기억하지 않아야 완성되는 춤

탱고를 정복하고자하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 인생을 가르쳐주는 춤이라는데 굳이 정복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 든다. 하지만 정복할 방법이 아주 없지는 않다. 춤을 추는 동안 자신이 어떤 춤을 췄고, 어떤 춤을 출 것인지 기억하지 않으면 된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 계산하지 않는 것이다. 탱고는 스텝이 꼬여도, 발을 밟아도 춤을 멈추기 전까

지는 그 자체로 탱고이기 때문에 계산이 필요 없다. 예측불가능한 일의 연속이지만 죽기 전까지는 그 자체가 모두 인간의 인생인 것처럼 이 춤도 그렇다. 그래서 탱고를 시작한 이들은 절대로 이 춤을 그만두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 춤을 알고 인생도 알게 되었는데 인생이 끝나기 전에는 탱고도 절대로 끝날 수가 없지 않느냐는 것이 탱고애호가들의 주장이다. 그래서 탱고도 인생처럼 흘러가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몇 분 앞에 닥칠 일도 점치지 못해 순간순간을 마주하며 사는 우리의 모습처럼 이 춤을 출 때의 우리도 그렇게 흐르는 것이 순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생도 인위적으로 완성시킬 수가 없으니 탱고 스텝도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기억할 필요도 없고 기억한다고 해서 진행될 수도 없는 인생을 닮은 춤이 탱고이므로 이 춤을 출 때는 기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억하지 않아도 완성되는 춤이 탱고인 것이다.

나여랑 -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연극학과 재학